



특집 _ 일상 회복 위한 백신 접종 시작, 11월 집단 면역 목표
 기획 _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교육 포털 '스터디코리아' 새 단장
 화제 _ "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 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죽기를 원하는가’ 하고 물으면, 나의 최대 소원은 독립이 성공한 후 본국에 들어가 입성식(入城式)을 하고 죽는 것이며, 작은 소망은 미주·하와이 동포들을 만나보고 돌아오다 비행기 위에서 죽으면 시신을 아래로 던져 산중에 떨어지면 짐승들의 뱃속에, 바다 가운데 떨어지면 물고기 뱃속에 영원히 잡드는 것이다.”

이는 백범 김구 선생의 자서전인 ‘백범일지’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백범은 주석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지도자이고, 독립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미주와 하와이를 비롯하여 멕시코와 쿠바에 이주한 동포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백범은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고, 미주동포들을 만나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수립되어 해방을 맞아 환국할 때까지 27년여 동안 중국에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시정부는 특히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백범은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수없이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백범은 이를 ‘편지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고서 독립금·혈성금 등의 명목으로 모금을 하였고, 개인적으로도 돈을 보냈습니다. 당시 미주와 하와이의 동포들은 대부분 노동이민자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하루 노동해서 번 임금의 30% 이상을 떼어 내어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쿠바와 멕시코에 이주한 동포들도 그랬습니다.

임시정부가 정부의 조직을 유지해나갈 수 있었던 것도, 또 독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



한시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

니다. 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처단하는 의거를 결행한 것, 윤봉길 의사가 흥커우공원에서 시라카와 일본육군대장을 처단할 때 사용한 폭탄은 모두 미주동포들이 보내준 자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광복군 창설 소식을 접한 미주동포들은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라’며 모금운동을 벌였고, 모금한 돈을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그 자금으로 광복군을 창설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미주동포들의 후원에 힘입어 조직을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었고, 독립을 보장받는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1943년 11월 미·영·중 3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카이로회의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자유 독립되게 한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는 미주동포들의 힘과 역할이 적지 않았습니다. 국내와 국외에 있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 더없는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소원했던 미주동포들을 만나 고마움을 표하고자 했던 그 일을 재외동포재단이 대신한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수난을 당할 때 재외동포들이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해낸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크게 발전하는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독립기념관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독립을 쟁취했던 역사적 경험을 되살려, 750만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는 일에 독립기념관이 뒤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창**



02 권두언	재외동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한시준 대한민국 독립기념관 관장
04 특집	일상 회복 위한 백신 접종 시작, 11월 집단 면역 목표
06 기획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교육 포털 '스터디코리안' 새 단장
08 화제	"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 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10 글로벌 코리안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영 김, 14년 전 위안부 결의안 숨은 공로자 12년째 뉴질랜드 노숙인 '밥퍼' 한인 택시기사 "代이어 봉사"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 "한인 경제네트워크 활성화에 총력"
12 한민족 공감	'한일 화해·역사적 진실 알리기' 일본 속 고려박물관 20돌
13 주목! 차세대	'최악 치명률' 멕시코서 코로나와 싸우는 한인 의사 최수정
14 동포소식	박의장, UAE동포 격려... "특별 전략동반자의 민간외교관" 외
17 동포 캘린더	재미동포 청소년단체, '위안부=매춘부' 논문 철회 촉구 청원 외
18 유공 동포 1	최인훈 소설 '광장' 주인공 모델 현동화 전 재인도한인회장
19 유공 동포 2	호주 국민훈장 받는 前 우리나라 1호 대통령 헬기 조종사
20 지구촌 통신원 1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계 민족학교 교가 日고시엔서 울려 퍼진다
21 지구촌 통신원 2	14년간 매주 노숙자에 샌드위치 제공한 캐나다 한인 부부
22 동포문학	우리 아버지 강정희(독일)
23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모국 역사문화 체험'으로 정체성 함양 외
24 유관단체 소식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올해 350명 선발...6월 30일까지 신청 외
25 기고문	한국 고구마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고려인의 역할 송금영 전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26 재단공지	재외동포재단, 2021년도 모국 초청 장학생 모집

발행인: 김성곤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조사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 회복 위한 백신 접종 시작, 11월 집단 면역 목표

의료분야 우선, 5월부터 65세 이상, 하반기 전국민 확대

정부는 최근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2월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 접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전 국민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고 밝혔다.

접종 초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이 진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냉장·냉동 물류)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 국립중앙의료원서 첫 접종

2월부터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4만 9000여 명과 요양병원·시설 관련자 78만 명이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이어 3월 중순부터 중증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기타 관련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119 구급대·역학조사·검역요원·검체 검사 및 이송요원 등, 총 44만 명이 접종을 받는다.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한 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



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한다. 이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2분기인 5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들 85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작한다. 노인·장애인·노숙인 등 코로나19 취약 시설 입소자·종사자 90만 명도 2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됐다. 고위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과 약국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 38만 명도 2분기 접종 대상이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3분기부터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해당 접종 기간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마지막 순위로 밀리게 된다.

백신 전담 심사로 안정성 확인 후 접종 승인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화이자, 모더나 등 백신 제약사를 통해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6백만 명분의 백신을 다양한 종류별로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2



3



4

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안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종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를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과 출하를 승인한다. 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과 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수술을 위해 군 인력이 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한다.

이상반응 신속 대응, 치료비 등 국가 보상

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 정보 안내와 원활한 사전 예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전용 예방접종 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https://ncv.kdca.go.kr>)을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기 및 사전 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민비서서비스(행정안전부)와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해 국민이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로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접종한다.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

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한다.

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점검을 실시한다.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예방 접종과의 인과 관계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피해사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을 부담 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기대해 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장**

1.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여섯번째)가 2월 24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경북 안동시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 첫 출하 기념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6일 서울 마포구보건소를 방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종사자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인 충남 천안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의료인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 전 체온을 확인하고 있다.
4. 군과 경찰의 보호 속에 강원 춘천시보건소에서 도착한 백신을 수송 요원이 옮기고 있다.

재외동포 차세대 정체성 교육 포털 ‘스터디코리아’ 새 단장

교사·학생·한글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비대면 콘텐츠 강화



재외동포재단에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글·문화·역사 교육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아’가 2021년을 맞아 새 단장을 했다.

스터디코리아는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온 한글학교의 발전과 교사의 실력 함양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자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터디코리아는 온 라인 학습 콘텐츠와 한글학교 교사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EBS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습 콘텐츠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학습 환경 지원과 전자도서관을 운영하

며, 학습 또는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상담에도 응하고 있다.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는 스터디코리아를 처음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 직관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교사·학생·한글학교 역량 강화에 초점

개편된 내용은 총 6개의 메뉴로 구성되었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교육 자료를 모은 ‘수업용 자료’, 학생이 직접 시청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학생’, 한글학교 운영과 지원을 위한 ‘한글학교’ 등 사용자 측면에서의 용도별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특히, 수업용 자료 코너에서는 한글학교 한국어, 척척박사, 일상 회화, 관용표현, 고유어와 사자성어, 신조어 이해, 시사용어, 신나는 한국어, 쓱쓱 뉴스 말 돋보기, 재미있는 낱말 풀이, 한국어 따라잡기 등 한국어 사용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짜임새 있게 구분함으로써 자가 학습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필요한 이민사, 지식채널e, 한국사,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등의 역사 학습의 강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동요, 만화, K-팝 한국어 등 문화 콘텐츠를 흥미 있게 제공하여 학습 동기를 키우도록 하였다.

한글학교 교사가 재외동포 아동, 청소년, 성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을 전파하고 교육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교사로서의 직능 전문성을 확인해 주는 인증 제도가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스터디코리아는 한글학교 교사 인증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인증 과정을 수강하면 재단이 인증하는 소정의 자격 이수증을 발급해 준다.

스터디코리아를 통해서 연령, 경력, 거주 지역 등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들은 기초적인 소양인 한국어학, 한국어교육, 아동교육, 한국 문화와 역사, 한국어 교수법 등에 대한 지식과 최신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비대면 원격 수업 대응 콘텐츠 강화

스터디코리아의 유용한 새 소식이나 공지사항, 학습 자료 등은 각각 ‘참여·알림’, ‘자료실’ 메뉴에서 볼 수 있다. 한글학교의 근황을 볼 수 있었던 ‘NOW! 한글학교’는 ‘한글학교 소식’으로, 교사들이 직접 자료를 나누던 ‘니눔터’는 ‘자료공유실’로 바뀌는 등 메뉴명을 한눈에 알기 쉽게 개선했다. 반면 학생들이 직접 시청하는 자료는 ‘3분 K-Culture’와 같이 흥미 위



2

주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사용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제휴 콘텐츠'와 같은 메뉴명도 순화하여 정리됐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위주의 최적화를 목표로 오랜 기간 논의와 수요 조사를 통해 진행된 만큼 보다 많은 사람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터디코리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의 장기화로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해진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자료를 엮은 콘텐츠 맵, 학생용 자기 학습 활동지, 한글학교 교사 특별 연수 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 독려를 위한 손편지 이벤트, 슬기로운 집콕 생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끈관을 겪는 재외동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터디코리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며 재외동포를 위한 역사, 문화 교육 부문 콘텐츠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모색하는 등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터디코리아는 내외 동포 누구나 회원가입을 하면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글학교 교사 등은 소속 교사 ID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장**

1. 스터디코리아는 학생용 학습 콘텐츠, 교사 역량 강화, 수업용 자료, 한글학교 운영지원, 커뮤니티 등을 제공한다.
2.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 교육 지원의 기반인 스터디코리아를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 직관성과 편의성에 초점을 두고 사이트를 재단장해서 오픈했다.

주요 콘텐츠



3분 K-Culture 한국어, 한국 문화에 대한 주제로 5분 미만의 짧은 영상으로 기획된 콘텐츠로 학생이 직접 시청하거나 교사들이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별 자기 학습 한글학교 교사, 예비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참고 자료, 명절, 의태어·의성어, 한류, 한국 어문, 정체성 등 문화 역사 자료 활용 수업, 각종 평가 등 다양한 교수법을 소개한다.



교사 인증과정 한글학교에 소속된 교사를 위한 과정. 정해진 수강 일정에 따라 신청 및 학습할 수 있으며, 수료 후에는 재단 이사장 명의의 이수증이 발급된다.

참여형 콘텐츠 현직 한글학교 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교수 자료로 학급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다.



한글학교 소식 115개국 1천642개 한글학교의 현황과 각종 행사와 운영 소식 등을 전해 학교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공유할 수 있다.

“750만 재외동포 중요 자산… 재외동포청 설립 시급”

국회 토론회서 동포사회 전담기구 설치 논의 ‘재점화’

한민족의 귀중한 자산인 750만 명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을 세우고 실행할 콘트롤타워인 ‘재외동포청’을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정부 재외동포 전담 기구 설치 논의가 재점화됐다.

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이 같은 목소리를 쏟아냈다.

토론회에는 설훈·노웅래·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무소속 의원,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광일 재외동포재단 사업이사,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사장, 정부 각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200명은 줌(Zoom)으로 함께했다.

“인구 절벽시대 귀중한 인적자산 콘트롤타워 있어야”

기조 발제에 나선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 정책과 조직’을 주제로 재외동

포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원장은 “2067년에는 3천900만 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시대에 750만 재외동포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이미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며 “1만여 개에 달하는 세계 한인 단체와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도 콘트롤타워를 맡을 정부 조직으로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위원회 또는 재외동포청이나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원장은 “1997년 재외동포재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9번 재외동포청 또는 대통령 소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입장차로 논의만 하다가 전부 유야무야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다 보니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중복 지원 현상이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고 강조하면서 재외동포청 설립 현실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재외동포,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하다 보니 중복 지원과 사각지대가 나오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통합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에서 박종범 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외교부 산하 조직으로 재외동포청이 설립될 경우 업무 조정과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웅기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HK교수는 “전담기구 설치도 중요하지만 우선 산재한 현안 해결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위한 법적 근





3

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종 복지에서 차별받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노영돈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전담기구가 정책 수립과 실행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하급 기구인 청급 조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원장은 위원회나 처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실효 가능성이 높은 청을 설립한 후, 점차로 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중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동포들은 전담기구 설치 움직임에 환영하면서도 단순히 ‘논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매년 재외동포청 설립을 건의해왔고 여야 의원들도 동조해왔음에도 지금까지 진전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며 “토론회가 공염불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이 세워지면 한반도 평화통일과 대한민국을 알리는 동포사회의 공공외교 역량도 확대될 것”이라고 반겼다. 나은숙 미국 LA 민주회의 운영위원은 “재외동포도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므로 재외동포청을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로 여기는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포사회 “재외동포청 설립은 국익에도 부합” 주장

전담기구 설립이 재외동포를 위한 선심이 아니라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허인욱 미국 재외동포처신설추진위원장은 “재외동포를 위해 모국이 뭘 해주어야 한다는 선심성으로 동포청 설립 논의를 해서는 안된다”며 “재외동포는 거주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고 경제영토를 확장해온 개척자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설규정 민주평통중국청도협의회 회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세워진 1997년 당시와 현재의 재외동포 위상은 크게 달라졌으므로 여기에 걸맞은 기구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건의했다.



4

토론회에 줌으로 참여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각국 동포들이 참여한 것을 보듯이 재외동포와 국내동포 간 물리적 거리는 사실상 없어졌다”며 “통합기구 마련에 여야의 공감대가 크기에 구체적인 성과가 곧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후 외교부·교육부·병무청·법무부·통일부·민주평통 등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의 입장과 견해가 이어졌다

2월 24일 재외동포청 설립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설총 의원은 토론회를 종합하면서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인 ‘재외동포청’ 설립이 외교적 마찰 우려와 부처 간 업무 조정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뤄져 왔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며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

1.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설립 모색 토론회는 줌(Zoom)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렸다.
2.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3. 2월 25일 국회 본청 220호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4. 2013년 10월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와 한명숙, 김성곤 의원실이 개최한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 규탄’ 영 김, 14년 전 위안부 결의안 숨은 공로자 지한파 하원의원 에드 로이스 보좌관 시절부터 위안부 문제 천착

한국계인 영 김(한국명 김영옥) 연방 하원의원이 미국 정계에서 위안부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중심인물로 부상 중이다. 사상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에 당선된 3명의 한국계 여성 중 한 명인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향해 최근 트위터로 “역겹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은 진실이 아니고 사실을 오도하는 내용이라고 일축하면서 “난 위안부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다”고 소개했다. 일단 김 의원은 2007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H.R. 121)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숨은 공로자로 꼽힌다.

당시 김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외교위원회의 거물이었던 에드 로이스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마이클 혼다 전 의원이 발의한 위안부 결의안은 당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얻지 못했지만, 로이스 전 의원 등 공화당 중진들의 참여로 결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보좌관으로서 로이스 전 의원을 도와 위안부 결의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 데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결의안 초안 작성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당시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한인유권자센터 측의 설명이다.

그는 2014년 캘리포니아 주하원 시절 한인단체들이 위안부 역사를 캘리포니아주 공립 고교 학생들에게 가르치자는 운동을 지지해 이들의 주장이 반영된 역사·사회과학 교과과정 지침 개정안이 2016년 만장일치로 승인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김 의원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역사를 바로잡고 알리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2년째 뉴질랜드 노숙인 ‘밥퍼’ 한인 택시기사 “代이어 봉사” 정신기 씨, 매주 크라이스트처치 라티머 광장서 무료 급식

뉴질랜드 남섬의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라티머 광장에서 매주 노숙인 120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한인 택시 운전자 정신기(63) 씨의 소망은 거리에 노숙자들이 없어질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정 씨의 봉사에는 아내 손현숙 씨와 아들도 동참한다. 또 한인, 현지인, 타민족 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도우미 10여 명도 거든다. 이들은 매주 줄지어 늘어선 노숙인들에게 소시지, 식빵, 볶음밥, 감자 샐러드, 스시, 수프, 머핀, 커피 등을 나눠주고 있다.

정 씨는 인터뷰에서 “제가 못하면 자식 3남 1녀 중 누군가가 이어서 하고, 다시 손자가 이으면 좋겠다”며 “한번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 씨는 국내 한 중견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1993년 뉴질랜드에 이민했다. 여행 가이드를 비롯해 닻치는 대로 일했고, 23년 전부터



택시 운전을 하면서 크라이스트처치에 정착했다.

“바람이 매서운 겨울날 택시를 몰고 라티머 광장을 지나가는 데 경찰들이 플리스라인을 치는 걸 봤죠. 궁금해 가까이 가보니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노숙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죽었을 것으로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처음에는 무작정 햄버거 10개를 들고 라티머 광장으로 달려가 나눠주고는 노숙인들에게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그는 12년째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초창기 100달러(NZD·약 8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매주 120~150명의 급식자가 늘어나면서 150달러(약 12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기부금이 생겨서 처음보다는 음식물을 사는 데 빠듯하지 않습니다.”

정 씨는 봉사 활동의 근원을 현재도 경북 청도에서 27년째 한센인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89)의 영향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봉사 활동을 인정받아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로컬 히어로’ 메달과 영국 여왕의 ‘퀸 서비스’ 메달을 받았다.



하용화 월드옥타 회장 “한인 경제네트워크 활성화에 총력” ‘통합 리더스 콘퍼런스’ 열어 창립 40주년 사업 계획 등 수립

하용화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속에서도 월드옥타는 온라인 체제로 곧바로 전환해 모국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과 국내 구직 청년의 해외 진출 등의 사업을 전개했다”며 “올해도 온·오프라인 통합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월드옥타는 지난해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옥타 앱’ 론칭)을 구축해 각각 1천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화상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오프라인 네트워크 패러다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재외동포 단체로는 가장 모범적인 단체”라는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았다.

월드옥타의 대표 행사인 세계대표자대회와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코로나19 탓에 연기됐지만, 온라인에서 수출상담회를 열어 1천360만 달러(약 150억 8천만 원)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월드옥타는 5월께 대전 컨벤션센터(DCC) 센터에서 제22차 세계대표자대회·수출상담회를, 10월 서울 그랜드워커히 호텔에서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월드옥타는 세계 68개국 143개 도시에 지회를 뒀고, 차세대 회원 포함 3만여 명의 경제인이 활동하는 재외동포 최대 규모 경제단체로 성장했다.

하 회장은 “지난 40년 선배들의 발걸음을 월드옥타 100년을 향한 밑거름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면서 “회원과 차세대, 고국이 실질적인 상생을 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앞으로도 선배들이 보여준 ‘모국상품 구매단’ 파견, IMF(국제통화기금) 당시 ‘외화 송금 운동’ 등의 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고국 기업을 위해 수출을 판로를 개척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창**



‘한일 화해 · 역사적 진실 알리기’ 일본 속 고려박물관 20돌

日정부 차원서 왜곡 ‘조선인 강제노동’ 등 어두운 역사 집중 조명

‘시민이 만드는 한일 교류의 역사박물관’을 표방하는 고려박물관이 출범 20돌을 맞아 새 단장을 거쳐 다시 문을 열었다.

이름 때문에 한국의 어딘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고려박물관은 일본에서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도쿄 신주쿠(新宿)구 오쿠보(大久保) 거리의 ‘한국광장’ 건물 7층에 들어서 있다. 박물관 이름은 ‘코리아(KOREA)의 어원인 ‘고려’(高麗·일본어 발음은 고라이)에서 따왔다.

박물관 측은 한국과 조선을 하나로 담은 말이라고 의미를 설명한다. 일본 시민과 재일 코리안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이 박물관은 무려 1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1년 12월 7일 문을 열었다.

이 박물관의 지향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1537~1598)의 두 차례 조선 침략과 일제 식민 지배의 죄책을 반성하고 역사적 사실을 마주하면서 한일 양국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에 사는 조선·한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내세운다.

NPO(비영리단체) 법인으로 등록된 이 박물관은 자원봉사하는 활동가들의 손으로 지탱된다. 작년 11월 현재 회비를 내는 회원이 일본 전국에 691명이나 되고, 그중 120명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다. 전시와 강연 등 이벤트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활동가는 63명이라고 한다.

이들의 힘으로 2001년 개관 이후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까지 마련된 기획 전시 횟수는 45차례에 달한다. 전시 행사 외에 한일 우호 등을 주제로 한 음악회와 공연회는 17차례, 강연회와 강좌는 55차례나 열렸다.

고려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새 단장 공사를 거쳐 2월 3일 다시 문을 열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간의 뜨거운 이슈에 집중해 역사적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한 현대



일본 도쿄 신주쿠구 오쿠보 거리의 ‘한국광장’ 건물 7층에 들어선 고려박물관 전시실(위)과 외관 모습.

토픽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전시 내용을 한층 풍성하게 꾸몄다. 재개관을 기념해 올 7월 4일까지로 일정이 잡힌 첫 기획 전시의 주제는 ‘왜, 한국은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취소를 요구할까? -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과 강제노동’이다. 이 전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왜곡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일제의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를 있는 그대로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려박물관의 무라카미 게이코(村上啓子) 이사장은 “한일 국교가 정상화한 1965년 이후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유아무야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행태를 제대로 알릴 계획”이라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는 전시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최악 치명률’ 멕시코서 코로나와 싸우는 한인의사 최수정

“1년간 집과 병원만 오가... 한인사회 위해 봉사하고 싶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형 사립병원 에스파놀병원에서 근무하는 4년차 내과 전공의 최수정(29) 씨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은 1년 전이다. 멕시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건 지난해 2월 말이었지만, 인근 중국 대기업 때문에 중국인 환자가 많은 최 씨의 병원엔 일찍부터 의심환자들이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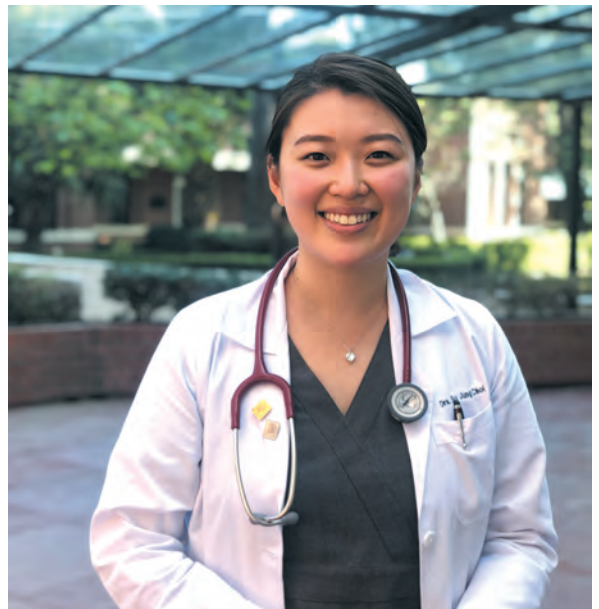
일찌감치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됐던 최 씨가 코디네이터를 맡아 코로나19 병동 구축과 직원 교육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원에서 만난 최씨는 “체계가 잡히기 전엔 모든 게 어려웠다”며 “16시간까지 연속으로 근무해야 했고, 의료진뿐 아니라 침대 옮기고 청소하시는 직원 분들께도 방호복 입고 벗는 법 등을 상세히 가르쳐드려야 했다”고 돌아봤다.

그렇게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싸움은 1년째 지속됐다. 숨 돌릴 틈도 없는 악화일로였다. 멕시코의 하루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병상 포화도는 모두 최근에 최고치를 찍었다. 멕시코의 코로나19 사망자는 미국, 브라질에 이어 전 세계 3위고, 치명률(8.6%)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 씨는 확진자가 과소 집계된 것 외에도 높은 기저질환 유병률, 지역·계층 간의 의료 불평등, 다소 느긋한 멕시코인의 성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의료 체계가 열악한 지방에선 의료붕괴가 일어나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며 “비만과 고혈압, 당뇨 인구도 많다. 중증으로 가는 환자의 80%가 비만”이라고 말했다.

멕시코는 코로나19로 희생된 의료진 수에서도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곳이다. 마스크와 장갑 등 기본 보호 장비도 충분치 않아 의료인들의 시위가 잇따르기도 했다.

멕시코시티 빅5 사립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최 씨의 병원에선 장비 부족은 없었으나, 많은 의료진이 감염됐다. 고령자나 기저질환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료에서 배제돼 최씨 같은 젊은 의사들에게 일이 몰렸는데, 최 씨는 다행히 감염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에스파놀병원에서 4년 차 내과 전공의 최수정 씨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병동 구축과 직원 교육 등을 맡아왔다.

피했다. “같은 멕시코에 계신 부모님도 안 찾아뵙고 1년간 집과 병원만 오가면서 철저히 사회와 격리된 생활을 했어요. 방호복을 입고 있는 12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셨죠.”

멕시코에선 동포와 주재원 등 한인들의 코로나19 감염과 사망도 잇따르고 있는데, 병원을 찾는 절박한 한인 환자들에게 최 씨는 매우 든든한 존재다. 주로 부모님 또래인 한인 환자들을 만나면 최선을 다해 통역이나 병상 확보를 도와준다. 통원 환자에게도 수시로 전화해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한다.

그는 “어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때까진 힘닿는 대로 봉사하고 싶다”며 “한국의 의료와 K방역을 직접 배울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박의장, UAE동포 격려... “특별 전략동반자의 민간외교관”

동포 · 지상사 주재원 애로사항 청취, 파병부대 장병도 격려

중동을 순방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2월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동포 · 지상사 대표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 의장은 이날 아부다비 에리미트 팰리스 호텔에서 진행한 동포 · 기업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이번 UAE 방문은 양국의 ‘특별 전략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1만3천명의 UAE 교민들이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틀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교민들의 활약을 위해서는 우선 현지 국가가 잘 돼야 하고 한국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하는데, UAE는 그런 조건을 다 갖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이 진정한 형제의 나라로서 모든 방면에서 우정을 돈독히 하도록 국회 차원에



중동 순방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아랍에미리트 동포 · 지상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행사에는 장광덕 한인회 부회장, 이동재 민주평통 분회장, 최성환 한전 UAE 원전 본부장, 권용진 서울대병원 셰이크 칼리파 병원(SKSH) 중동사업 추진단장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이어 박 의장은 UAE 파병부대인 군사훈련협력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

했다. 박 의장은 “이국땅에서 국방 선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을 대한민국은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장병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투력 향상은 물론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 군사외교관이라는 자세로 한-UAE 군사협력력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美동포 2세, 온라인서 한국 홍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1회 친구야! 대한민국 소개할게’ 개최

재미동포 2세들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 자료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면서 함께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가 최근 온라인에서 열렸다.

미국 내 850개 한국학교를 둔 비영리단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현지 시간으로 2월 23일 오후 줌(Zoom)과 유튜브에서 ‘제1회 친구야 대한민국을 소개할게’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지난해 6개월 동안 ‘대한민국 바로 알리기’ NAKS 기사단으로 활동했던 이연우, 오연우, 김민진, 장민아, 박유진 학생이 참여했다.

이들은 각 지역 한국학교 중 · 고등학교(6~12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땅 독도를 비롯해 한국전쟁, 일본 욱일기와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섬, 한국 전통 무용 등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2월 23일 줌(Zoom)과 유튜브에서 ‘제1회 친구야 대한민국을 소개할게’ 행사를 열었다.

알려줬다.

특히 미시간 세종학교 12학년에 재학하는 이연우 학생은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나의 조국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애틀 뱌뷰통합학교 11학년인 장민아 학생은 ‘욱일기의 잘못된 사용’을 발표해 큰 호응을 끌어냈다.

NAKS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패널로 참여한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 역사에 자

극심을 가질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며 “혼자만의 연구가 아닌 여러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문화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들의 관심 있는 문제 제기와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기회였다”고 말했다.

온두라스 한인 기업인, 빈곤층 위해 의류 ‘나눔’

박준영 대표 “나보다 더 힘든 이들 돕고 싶었다”

중미 온두라스의 한인 기업인이 현지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과 모자 보건 복지 증진을 위해 임부복 등을 기부했다.

주온두라스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지에서 무역회사 PS NINE을 운영하는 박준영(42) 대표가 2월23일 온두라스 영부인실에 임신부용 의류와 신발 등 15만달러(1억7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한국산 의류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박 대표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온두라스에서 거둔 수익의 일부를 현지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대사관에 물품을 기탁했다.

박 대표는 “해외에서 짧지 않은 기간 사업을 하면서 중미 빈곤층의 열악한 삶을 접하게 됐다”며 “코로나로 인해 사업 운영이



취약계층 지원 물품 전달한 뒤 기념 촬영하는 한인 기업인 박준영 대표 (왼쪽)와 심재현 주온두라스 한국대사관 대사(왼쪽 두 번째)

어려워진 상황에서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빈곤층을 보며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힘들 때 더 힘든 이들을 도우면서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기증품을 전달받은 구스타보 크루스 온두라스 재난안전청 부청장은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임신부 등 사회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대사관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포사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고손자 인천시·병원 도움받아 신장 수술

고려인 4세 초이 일리아씨... 인천대 입학 앞두고 신장 질환 앓아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러시아 국적 후손이 국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신장 질환을 앓다가 인천시와 한 병원의 도움으로 수술받게 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재형 선생 고손자인 러시아 국적의 초이 일리아(19)씨는 3월 인천대학교 입학 앞두고 국내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월 15일 갑작스러운 복통 증상을 보였다.

이어 병원에서 ‘수신증’ 판정을 받았다. 수신증은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모이는 장기인 ‘신우’에 이상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지만, 비용이 없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을 알게 된 인천시는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나눔의료사업’을 통해 그를 돕기로 하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후손 초이 일리아씨(가운데)와 인천사랑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 하는 모습.

협의를 요청했다. 요청을 흔쾌히 수락한 병원은 수술비 등 치료비 2천여만원 중 1천400만원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나머지 600만원은 인천시가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3월 초 수술을 실시하고 완쾌 후 퇴원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봉사단체인 ‘인천사랑회’는 일리아 씨의 학업을 돕기 위해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평가받는 최재형(1860~1920) 선생은 일제강점기 러시아 연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계를 돕고 학교를 세웠으며, 항일 독립운동과 한인 교육 지원에 헌신하다 1920년 일본군에 체포돼 순국했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저격 을 지원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뉴질랜드 치치서 6·25 참전용사에 ‘평화의 사도메달’ 헌정

참전기념 다리 재개장, 용사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어 감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치치) 시와 서울시 송파구 자매도시위원회는 6·25 참전용사와 가족 80여 명을 초청해 한국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평화의 사도메달’을 헌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사는 2001년 문을 연 자매도시 공원 개장 20주년을 계기로 각 지역의 참전용사 모임을 후원해 온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21일 오후(현지시간) 치치 시내의 자매도시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상진 주뉴질랜드한국 대사와 앤드루 터너 치치 부시장, 윤교진 치치 한인회장, 아담 커턴 자매도시위원장, 코리안가든 운영위원, 한인회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상진 대사의 참전 용사 헌사 낭독에 이어 한국 무용과 K-팝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내 공원 소재 ‘6·25 참전 기념 한국의 다리’ 앞에서 ‘평화의 사도메달’을 받은 참전용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댄스팀의 공연, 최근 보수를 끝내고 새 단장을 한 공원 내 ‘6·25 참전 기념 한국의 다리’ 재개통식 순으로 열렸다.

또 2011년 치치 대지진으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유나온·유길환을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용사들에게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평화의 사도메달’

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감사 서신을 전달하고, 방역 마스크도 증정했다. 또 자매도시 공원에서 개최한 한복 사진 콘테스트의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 전시회도 열렸다.

참전용사들은 “전쟁 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이를 잊지 않고 예우해주어 감사하다”며 “특히 가족들을 함께 초청해주어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기뻐했다.

사할린 한인 “강제 징용 선조 유해 봉환 대상 확대” 희망

올해 9월 유해 봉환, 천안 망향의 동산에 안치 예정

정부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된 한인의 유해 봉환 추진과 관련해 현지에서 “한국 국적의 유가족으로 한정된 신청자 자격을 현지 국적 후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올해 유해 봉환을 9월 중에 실시하며 봉환될 유해의 수는 10위 이내라고 밝혔다. 유해는 화장대 충남 천안 소재 국립 망향의동산 내 납골당에 안치된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조카 등 유가족이 3월 12일까지 유해 봉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대상은 강제 징용 희생자로 현지 사망자이며, 사할린 묘지가 확인돼야 한다. 또 국내 유가족이 봉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할린에도 유가족이 있으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할린 한인들은 유해 봉환 신청대상을 강제 징용



2019년 10월 7일 열린 7차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 희생자 유해 봉환·추도식.

한인의 현지 국적 후손까지 확대하고 봉환 대상에 그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자 후손인 박순옥 사할린한인협회장은 “강제 징용돼 사할린에 끌려온 선조들은 벌목장 등 각종 작업장에 끌려가 중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했거나 해방 뒤에도 귀환하지 못해 그곳에서 살다가 숨졌다”며 “이들의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 유해 봉환을 추

진하는 것이므로 현지 후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홍지 사할린주한인노인회장은 “후손들이 부모를 대부분 합장했는데 강제징용 희생자인 남편과 달리 부인은 비용을 후손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봉환 대상을 배우자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장**



재미동포 청소년단체, '위안부=매춘부' 논문 철회 촉구 청원

재미동포 청년들이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 논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국제 청원을 올렸다. 한인 청소년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총재 박윤숙) 소속 청년들은 지난주 세계 최대규모 청원사이트인 '체인지닷오아르지'에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철회하고, 하버드대는 그를 징계하라고 고발했다. 청년들은 청원에서 "명백한 역사적 왜곡이자 일본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군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재미한인과학기술협, 온라인 청년 리더십 학술대회 개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장 조술연)는 미국 내 한인 과학기술 지도자 양성과 2세 과학기술 전문가 교류 증진을 위해 '2021 청년 과학기술자 리더십 학술대회'를 1월 29~30일 온라인에서 개최했다. '내부 연결, 교차 연결'을 주제로 김광수 하버드대 의과대학 교수의 기조 강연을 비롯해 각종 특강과 성공적인 경력 개발을 위한 워크숍과 네트워킹 세션,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또 '제2회 차세대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 창업가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격려했다.

주중대사관, 세계한인의날 훈포장... 중국동포 동백장 수상

주중 한국대사관은 5일 대사관 대강당에서 2020년도 정부 훈포장 수여식을 열었다. 수여식에서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권순기 중국아주경제발전협회장을 비롯해 6명이 수상했다. 권 회장은 재외동포 권익 신장과 우리 기업의 중국 내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동백장을 수상했다. 권 회장은 조선족 동포로서 최초로 동백장을 수상했다고 대사관을 전했다. 또 북경한국인회가 동포사회 지원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동포사회 안전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 28명이 주중대사 표창을 받았다.



태국 한인사회, 한국전 참전용사들에 '한국의 정' 전하

한국의 설을 맞아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따뜻한 한국의 정(情)이 전달됐다. 주태국 한인회·노인회는 2월 11일 방콕 시내 한인타운에서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떡국을 대접하고 한국산 과일 등 선물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분당 말라이아리순 한국전 참전협회장 등 태국 참전협회 관계자들과 우뚝 카우끄라째(90) 옹 등 참전용사 8명이 참석했다. 재태국 재향군인회도 같은날 해군 부사관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고(故) 째 웡쁘라셋씨 가족에게 라면과 김치 등 격려품을 전달했다.

한인이민사박물관·뉴욕총영사관, 흑인사회에 마스크 기증

미국 한인이민사박물관과 뉴욕총영사관은 2월 20일 뉴욕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현지 흑인 사회에 마스크 2만장을 기증했다. 이날 행사에는 브루클린 동부를 지역구로 둔 하킴 제프리스(민주) 연방 하원의원과 에릭 곤살레스 브루클린 지방검사장이 참석해 장원삼 뉴욕총영사, 김민선 한인이민사박물관장과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을 나눠줬다. 민주당 뉴욕주 대의원인 김 관장은 이번 마스크 기증에 대해 "한인과 흑인 커뮤니티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 '천재' 고려인 10대 화가, 코로나19 주제 작품 전시회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예술인 중 천재성으로 주목받는 10대 화가 안 다비드(15)군이 최근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화폭에 담아 미술 전시회를 열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갤러리 '메디아 카페'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안 군은 "출품한 31점의 작품은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카자흐스탄의 계절별 자연 풍광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카자흐스탄의 화가 발레리아 발렌티노브나는 "안 군의 작품은 성인들의 작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창성과 천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최인훈 소설 '광장' 주인공 모델 현동화 전 재인도한인회장

한인사회 기반 닦은 '반공포로' 출신, 삶으로 분단 반세기 증언

2월 12일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현동화 전 재인도한인회장은 자신의 삶을 통해 분단 반세기의 굴곡을 생생하게 증언한 인물로 꼽힌다.

현 전 회장은 6·25전쟁 때 인민군으로 참전한 '반공 포로'다. 1932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그는 1950년 강원도 화천전투에서 크게 다치고 한국군에 귀순했다.

해방 후 북한에 살면서 남한을 동경한 그는 고향 마을이 폭격을 당해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소문 때문에 북으로 돌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가족 사망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자신의 남한 잔류가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될 점도 우려했다.

결국 그는 휴전 협정 체결 후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제3국행을 희망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최인훈의 소설 '광장'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의 주인공 이명준도 남과 북 어느 곳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인도행 타고르호에 오르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당시 인도에는 교민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현 전 회장 등 동료 3명은 인도에서 '한인 1세대'가 됐다.

이들은 인도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 양계장 사업을 시작했다. 황무지를 개간해 사업을 벌인 이들은 초기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현지 주민도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여러 시련을 딛고 양계장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 가발



2017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은 현동화 전 재인도한인회장.



2014년 8월 9일 인도 뉴델리에서 2014 인천아시아인 게임 성화를 봉송하는 현동화 전 재인도한인회장.

산업이 번성할 때 인도산 인모(人毛)를 수출하는 무역업으로 큰돈을 벌기도 했다.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일 때는 인도의 값싼 인력을 송출하는 사업도 벌였다. 아프가니스탄 섬유공장 건설 등을 통해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인도에서 근면과 성실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한 것이다.

1962년 뉴델리에 한국 총영사관이 생기면서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북에 두고 왔던 어머니와 형제가 서울에 정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국에서 가족과 상봉하기도 했다.

1984년부터는 20년간 재인도한인회장을 맡으며 교민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한국 기금'을 만들어 한국어 과정을 마친 인도 학생의 연수를 지원하는 등 양국 민간 교류에도 힘썼다.

그는 중립국행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질문에 "열심히 살았고 그때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좋아졌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은 2017년에는 한국-인도 간 수교와 교류, 인도 내 한인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

기도 했다.

현 전 회장은 생전에 "통일은 우리가 풀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라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뤄져 고향 땅을 밟고 싶다는 희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앞으로 다시는 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창**

호주 국민훈장 받는 前 우리나라 1호 대통령 헬기 조종사 황백선 예비역 중령 “여생, 韓-호주 우호증진 힘쏟겠다”

“호주 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고 슬프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생존 용사들과 한국-호주 간 우호관계 증진에 더 힘을 쏟겠습니다.”

참전용사들을 위한 봉사과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주 국민훈장(OAM) 수훈자로 결정된 황백선(88) 씨의 소감이다. 호주 정부는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데이를 맞아 국민훈장 수훈자를 발표했고, 동포로는 유일하게 황 씨가 뽑혔다.

그는 1982년 호주재향군인회 발족에 참여했으며, 1989년 6·25 참전유공자회 발족에 공헌했고 현재 호주 한국전쟁참전유공자회 고문으로 활동한다. 2003년부터 시드니제일교회 목사와 함께 매년 한-호 한국전쟁참전용사를 위한 기념예배를 진행했다. 황 고문은 한국 정부로부터도 화랑무공훈장(1969년), 호국영웅기장(2013년)을 받았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코로나19로 세상을 떠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유공자회 발족 당시 165명이었던 노병은 현재 50여명만 생존해 있다. 양로원 등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들 가운데 ‘벨모어 RSL클럽’(재향군인클럽)에서 여는 월례회에는 15명 정도 참석한다.

그는 1953년초 공군 조종간부 7기로 입대해 2년제 조종교육을 마치고 1955년 소위로 임관했다. 소령으로 진급한 1963년 청와대의 요청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군산 계화도 제방(현재 새만금으로 확대) 공사장으로 안내하는 비행을 했다. 이 인연으로 이듬해 ‘대통령 1호 헬기’ 조종사가 됐다. 그는 매 주 3~4회 대통령을 태우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현장, 간척지, 산업 현장 등을 누비며 전국을 날아다녔다.

그러다 1969년 6월 21일 강원도 명주 상공(1천700m 지점)에



호주 국민훈장 받은 황백선 예비역 중령(좌), 2019년 정전기념일에 시드니 6·25참전기념공원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황백선 고문.

서 헬기 엔진이 멈춰 불시착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헬기에는 동해경비사령부 창설식에 참가하려는 박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이 타고 있었다.

“갑자기 이상 신호음이 울리고, 헬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더니 프로펠러가 돌지 않았어요. ‘각하, 엔진이 꺼졌습니다. 안전벨트를 최대한 세계 매십시오’라고 말한 뒤 보리밭 옆 작은 공터에 불시착했습니다.”

지금도 당시 절체절명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는 황 고문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헬기 불시착 훈련을 수백번 이상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0년 12월 중령으로 예편해 이듬해 호주 항공사 에어패스트 한국 지사에 입사했고, 1972년 호주 본사로 발령을 받아 가족과 함께 이민했다.

한국 공군은 2015년 황 고문을 고국으로 초청해 당시 안전하게 비상 착륙해 국가 비상사태를 막아낸 공적을 기려 뒤늦게 ‘비행안전 웰던상’을 줬다.

한국보다 호주에서 더 오래 산 ‘호주 동포 이민사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그는 “이민을 온 이상 호주 국민과 유대관계를 갖고 제대로 정착해야 한다”고 한인 이민자들에게 말하면서도 “피는 한민족 혈통이니 고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계 민족학교 교가 日 고시엔서 울려 퍼진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 “야구 통해 한일 간 가교 역할”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외국계 학교 최초로 일본 선발고교야구 대회(봄 고시엔)에 진출한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학원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교가는 이렇게 시작한다.

모든 경기가 현지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인 고시엔 대회에서 ‘동해’로 시작하는 한국계 학교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 셈이다.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고시엔 진출 소식에 현지 언론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고시엔 진출 32개 고교의 명단이 발표된 1월 29일 교토국제고에는 NHK와 교도통신, 요미우리·아시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의 취재진 약 40명이 몰려 들었다.

박경수(61) 교토국제고 교장은 인터뷰에서 “감독과 선수 모두 고무돼 있다”며 전국 무대에서 실력을 선보일 기회를 잡은 선수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고교야구연맹과 마이니치신문이 주최하는 봄 고시엔 대회는 오는 3월 19일부터 효고(兵庫)현 소재 한신고시엔(阪神甲子園) 구장에서 열린다.

교토국제학원은 1947년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해 1958년 학교법인 교토한국학원법인 설립을 승인받았고, 1963년에는 고등



제93회 선발고교야구대회인 고시엔 진출 소식에 기뻐하는 교토국제고 야구부 선수들

부를 개교했다. 한국 정부의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 인가에 이어 2003년에는 일본 정부의 정식 학교 인가도 받았다.

1999년 창단된 야구부는 첫 경기에서 0-58로 대패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3년 교토 지역 대회에서 첫 8강에 진출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2019년에는 춘계 대회에서 우승해 신흥 강호로 부상했다. 두산베어스의 신성현 선수도 이 학교 출신이다.

박경수 교장은 “교가 때문에 일본 우익이 홈페이지나 트위터 등을 통해 시비를 걸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인가한 정식 학교인데 ‘일본해’를 ‘동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박 교장은 “70년을 불러온

교가다. 한국어 교가를 부르지 못하면 전국 대회에 나가는 의미가 자체가 퇴색된다”며 “졸업생과 교포 사회는 우리말 교가를 불러야 한다는 게 염원이다. K팝을 좋아하는 일본인 재학생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 재학생 131명 중 일본인은 93명으로 한국계 학생(37명)보다 많다.

교토국제고의 가사에는 한국과 일본이 수천 년 전부터 교류해왔고, 우리의 선조들이 일본에 건너와 뿌리를 내리기도 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교장은 “한국과 일본 아이들이 같이 뛰면서 야구를 통해 조선통신사와 같은 한일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교장으로서 꿈”이라고 말했다. 창

14년간 매주 노숙자에 샌드위치 제공한 캐나다 한인 부부

경남 통영 출신 김경태 · 배주연씨, 2001년 이민해 편의점 운영

“**벌**로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우리 **큰**에게는 14년 동안 익숙한 삶이거든요.”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매주 일요일 샌드위치를 무료 제공하는 캐나다 동포 김경태(68)·배주연(63) 씨 부부는 이처럼 겸손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데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부부는 서울에서 살다가 2001년 캐나다에 이민했다. 2년 뒤 온타리오주 세인트 캐서린스에 ‘포니 미니 마트’라는 이름의 편의점을 차렸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캐나다 정부가 이민을 받아주고, 먹고 살게 해주는데 이 나라에 특별히 공헌하는 것도 없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마약 중독에 빠진 노숙자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그들에게 마약은 나쁜 것이고,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생각에 샌드위치를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부부는 2007년부터 일요일마다 샌드위치 200여 개를 만들어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처음에는 빵에 햄, 토마토, 양상추, 치즈 등을 넣어 샌드위치를 만드는 시간이 3시간 정도였지만, 지금은 한인 자원봉사자 1명이 돕고 있어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게 안에다 놓으면 노숙자들이 들어와 1개씩 먹고 갑니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매주 일요일 샌드위치를 무료 제공하는 캐나다 동포 김경태·배주연 씨 부부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있는 모습(좌). 이웃들이 편의점에 놓고 간 털모자를 보여주는 배주연 씨와 노숙인과 마약중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샌드위치

다. 그들에게 마약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말없이 지켜보기만 할 때가 많죠. 처음에는 물을 제공했지만, 요즘은 특별한 날에만 음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샌드위치 1개 가격이 3~4달러 정도 된다고 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월 2천400~3천200달러(한화 209만~278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그동안 샌드위치 제공에 들어간 금액은 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가게 수입의 많은 부분이 샌드위치 만드는 데 들어가고 있어요. 한인이 이민해 가게를 운영하면서 돈만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

도 보살피면서 산다는 인식이 캐나다 사람들에게 심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이들 부부의 선행은 토론토 한국일보 등의 보도로 주변에 알려졌고, 지금은 노숙자들이 입을 옷이나 현금을 놓고 가는 한인과 현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인근 교회 교인들이 샌드위치 재료를 지원하기도 한다.

부부는 이러한 주위의 온정을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격려의 손길”로 이해한다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운이 떨어져 편의점 문을 닫을 때까지 노숙인들에게 샌드위치를 제공하겠다”고 소망했다. **장**

우리 아버지

강정희(독일)

장손의 무건 지게 묵묵히 짊어지고
매운 눈물 알알이 소리 없이 젖는 밤
모래땅 단봉낙타의 터덕터덕 발걸음

아버지 목마 타고 어둥둥 바닷가에
물팔매 멀리멀리 수제비 물결 모양
보고픈 얼굴 그린다. 동그라미 속에서

빨아낸 독사 독에 까무러진 아버지
포기는 절대로 안 돼! 이제야 난 알겠다.
말끔히 벌초 끝내고 큰절을 올립니다.

가 등 홀로 지키며 서러움 토하시던
문풍지 싫게 우는 밤 아버지 등을 본다.

‘올곧은 해아림은 인생의 길잡이야
마음의 소리 되어 날 키운 평생 보배
고마운 그 목소리는 이어간다. 대대로

성실한 허수아비 수없이 많은 날을
올곧음 이식하여 쓰임을 다하셨다.
빈 마음 하늘 닦으며 그리움을 좇는다.

잔말을 아끼시며 기본에 충실하신
마음속에 각인된 영원한 나의 스승
슬픔을 먹고 웃으며 씩씩 사신 한평생

무너지는 마음을 오래도 버티시며
대쪽의 깨끗함을 안고 사신 아버지
황소의 슬픈 눈동자 별이 되어 빛난다.

냄새 났 가죽가방 손때 죽 반들반들
숨죽은 초지일관 스며드는 그림자
영혼을 흔드는 기억 쓰리도록 그림다.

늦아침 수저 놓고 돌연히 멈춘 심장
감나무 주렁주렁 그 뉘도 못 한 배웅
가슴에 웅 매듭 하나 돌덩이 안고 산다.

봄이 오는 길췌에 아버지의 기일이
지금껏 들려오는 뚜벅뚜벅 그 소리
이렇게 문득문득 날 울리는 올 아버지!

애써 눈물 감추며 어버이를 찾는다. 창



재외동포재단 장학생 ‘모국 역사문화 체험’으로 정체성 함양

재외동포재단은 2월 16~18일과 23~25일에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정체성을 함양하는 ‘모국 역사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한겨울 지나 봄 오듯-세한(歲寒) 평안(平安)’ 전시회를 관람했다. 이 전시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김홍도의 작품으로 전하는 ‘평안감사양연도’를 하나의 주제로 엮어보는 전시다. 세한도는 제주도에 유배된 김정희의 고난과 이를 견디게 해준 벗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고, 평안감사양연도는 평안감사의 부임잔치 그림이다.

전시회 관람 등 박물관을 견학한 학생들은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리고 나무 등에 새겨서 문서에 찍는 인장 만들기 체험에도 참여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 올라 학생은 “울곧은 선비 정신이 무엇인지를 공감한 시간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재단은 장학생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고 선후배 간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1997년부터 매년 역사문화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에 이영근 전 에콰도르 대사 임명

이영근(60) 전 에콰도르 대사가 1월 27일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에 임명됐다.

이영근 신임 기획이사는 1991년 외교부에 들어와 주루마니아 대사관 3등서기관, 주프랑스대사관 3등서기관, 주코스타리카공화국대사관 2등서기관,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영사, 주인도네시아대사관 2등서기관, 주이라크대사관 1등서기관, 주이스탄불총영사관 영사를 거쳐 2014년 외교부 감사담당관, 2016년 외교부 운영지원담당관을 역임했고,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에콰도르대사를 지냈다. 주에콰도르대사로 재임하던 지난해 11월에는 한-에콰도르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에콰도르 대통령으로부터 최고등급의 훈장인 ‘공훈 국민훈장 대십자장’을 받았다. [▶](#)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올해 350명 선발 6월 30일까지 신청

올해 우리나라에 영주 귀국 할 사할린 동포는 총 35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영주귀국 가능 인원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일 시행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할린 동포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주 귀국 신청을 해야 한다.

7월 대상자가 선정되고 9월까지 본인 통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제 영주귀국은 12월께 진행될 계획이다.

영주귀국 이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국 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캠프를 운영하고 건강검진과 정착 지원, 국적 판정 신청, 국적 취득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사할린 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직계비속 1명



인천공항에서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를 환영하는 모습

과 그 배우자)이 대상이다. 직계비속은 사할린 동포가 동의한 8촌 이내 1명이다. 그러나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할린주한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3만여 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세는 530여 명, 2세는 5천여 명이다.

라오스서 꽃피운 ‘야구 외교’ ... 대사관 · 한인팀, 현지팀과 대결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 주재관과 공공기관 직원, 기업인 등 한인으로 구성된 야구팀 ‘아싸까오리’가 2월 27일 현지 야구팀 올스타와 비엔티안의 DGB야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아싸까오리는 자원봉사 등을 뜻하는 라오스어 접두어 ‘아싸’와 한국을 뜻하는 ‘까오리’의 합성어다.

지난 1월 9일 개막한 제1회 주라오스 한국대사배 야구대회 폐막에 맞춰 이 대회를 정례화하고, 라오스 정부와 한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행사다.

인구 720여 만명인 라오스에서 야구

선수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6개 팀 선수 120여 명이 전부다.

‘라오스 야구의 아버지’로 불리며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을 맡은 이만수 전 SK 와이번스 감독이 2013년 창단한 ‘라오J브라더스’가 현지 최초 야구팀이다.

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KIDC)가 공동으로 파견한 코이카 라오스 프로젝트 봉사단이 2019년 4월 창단한 라오스 동덕 국립대 야구팀인 ‘라오스 미라클’과 웨인짚 고교 야구팀이 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라오스 국제학교



한인으로 구성된 야구팀 ‘아싸까오리’가 현지 야구팀 올스타와 비엔티안의 DGB야구장에서 친선 경기를 펼쳤다.

도 야구팀을 결성하기로 하는 등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폐막식은 이날 오후 한국대사관 관저에서 임무중 대사와 정우상 재라오스 한인 회장, 칸탈리 라오스 교육체육부 차관, 캄파이 라오스 야구협회장, 카셈 라오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만수 전 감독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창**

한국 고구마의 중앙아시아 진출과 고려인의 역할

지난 6년간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부 간의 농업협력으로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고구마가 성공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2014년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카자흐스탄 농업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연수시키고 공동 연구한 노력의 결과이다.

북위(北緯) 43도인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에서 1ha당 약 38톤의 고구마가 생산됐는데 이는 한국의 15톤에 비해 2배 정도 높다.

전문가에 의하면 고구마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연중 4개월 이상이고 북위가 높을수록 수확량이 많다고 한다. 북위 49도인 카자흐스탄 오스케멘 지역에는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종자를 가져와 고구마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한국 고구마는 카자흐스탄의 재배 경험을 토대로 인접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여타 중앙아 국가들로 확산될 수가 있다.

식량 작물에서 고구마는 21세기의 구원투수라고 불린다. 그 이유를 꼽는다면 첫째 고구마는 주요한 식량자원이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 국가들은 농업 개발과 식량자립 문제를 심각히 고민하고 있으며, 고구마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고구마는 주요한 바이오 에너지 자원이다. 고구마는 단위 면적당 탄수화물과 바이오 에탄올을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 작물로 알려져 있다.

셋째 고구마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토마토, 브로콜리와



송금영

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대사

같이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육류 섭취 비율이 높은 중앙아 사람들은 비만과 심장병 등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고구마는 성인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고구마는 언제든지 먹기 쉽고 버릴 것이 없는 전천후 식품이다. 고구마는 날 것으로 먹을 수가 있으며, 잎과 줄기도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가축들에게도 좋은 사료다.

다섯째 고구마는 다른 작물과 비교할 때 강수량이 적은 사막이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중앙아의 광대한 스텝 지역과 사막, 이랄해 인근의 소금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고구마 품종을 개발한다면 생태계 복원은 물론, 사막화 방지에도 기여할 것이다.

현재 중앙아에는 약 30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 간의 농업협력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고구마 영농 기법을 개발하고 판매 시장을 개척한다면 고려인들의 소득 증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 주요한 과제는 중앙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고구마 품종을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앙아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주요한 대상 지역이다. 고구마가 한국생명공학의 첨병으로 중앙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고려인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창](#)



재외동포재단, 2021년도 모국 초청 장학생 모집

재외동포재단은 '모국 초청 재외동포 장학생'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장학생에게는 입출국 항공료, 생활비, 건강보험료, 어학연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장학생 역사문화 체험, 멘토링·지역별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지원한다.

학사 과정 30명, 석·박사 과정 80명 등 110명 안팎을 선발한다. 거주국과 모국의 상생 발전에 기여할 인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 중에서 성적 우수자가 선발 기준으로, 2021년 9월 학기 또는 2022년 3월 학기 국내 대학(원) 입학 예정자이어야 한다. 유공동포 후손,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후손, 경제 여건 곤란자, 입양동포와 그 자녀는 우대한다.

선발 결과는 6월 말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orean.net)를 참조.

2021년 2월 재외동포재단 임원 동정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월 19일 재외한인학회로부터 '재외동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듣고 활용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실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과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와의 연계 방안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송석원 재외한인학회 회장, 최영호 영산대 교수, 임영상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미국 뉴욕협의회가 2월 15일 개최한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초청 온라인 강연회'에 참석한 이사장은 100여명의 평통 위원을 대상으로 강의했다. 이사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미주동포들의 역할'을 주제로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750만 재외동포가 이념·지역·민족 갈등을 해소해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원 코리아(One Korea)' 운동을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월 25일 서울 마포구 스탠퍼드호텔에서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가 개최한 '2021 월드옥타 통합 리더스 컨퍼런스' 유관기관 간담회에 참석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설립 계획을 설명하고 월드옥타의 올해 사업 계획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의에는 하용화 회장 등 월드옥타 임직원이 참석했다.

김성곤 이사장: 2.3(수): 조재철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면담 / 2.5(금): 재단 자문위원단 오찬 / 2.18(목):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 오찬 / 2.22(월): 세계한상대회 유치 전북도청 관계자 면담 / 2.23(화):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 공주대 한민족교육문화원 관계자 면담 / 2.26(금): 재단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참석

이영근 기획이사: 2.1(월): 신임 기획이사 임명장 전수식 참석

정광일 사업이사: 2.25(목): 재외동포청 설립 토론회 참석



75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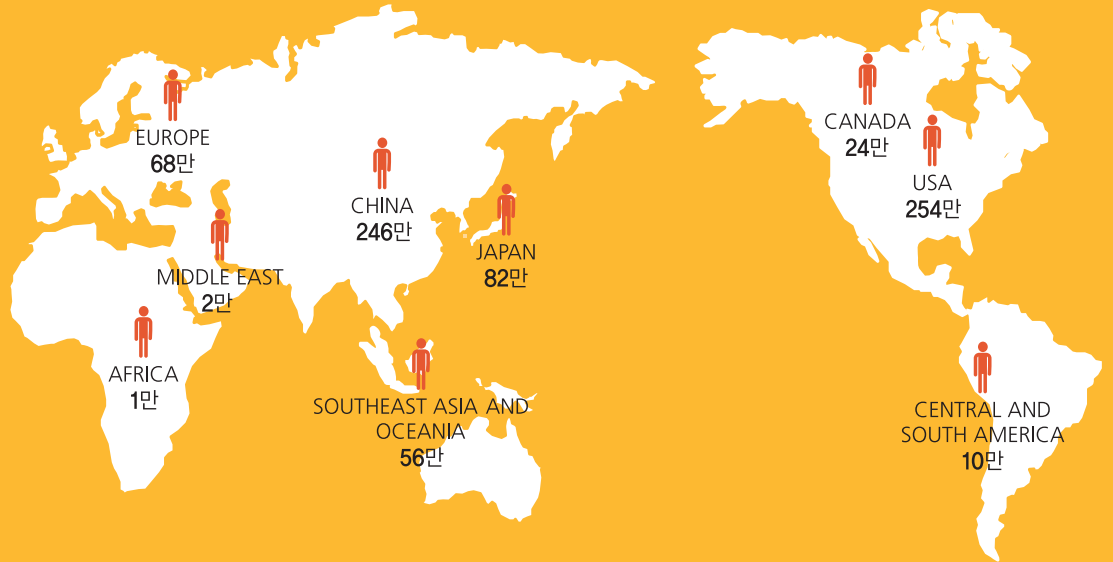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국민과 함께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관

재외동포재단, 세계 75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